



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
겨울 동화 속으로

44. 굿 바이, 코펜하겐

12월 18일. 해가 뜨려던 몇 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 새벽에 우리는 코펜하겐을 떠난다. R은 런던행 7시 20분 비행기를, 나는 노르웨이 베르겐행 10시 비행기를 타야 한다. 각자 따로 택시를 타고 갈 필요가 없기에 함께 일찍 호텔을 나서기로 하고 4시에 일어나 준비했다. 창밖은 캄캄했고 날씨가 어떨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샤워도 생략하고 얼굴에 크림만 잔뜩 발랐다. 준비를 마치니 4시 45분.



로비에 내려와 체크 아웃을 했다. 택시를 불러 달라고 했더니 정확히 3분 만에 택시가 왔다. 택시 기사는 마른 체격의 덴마크 중년 아저씨였는데 서투른 영어로 인사를 한다. 이상하게 어디선가 만났던 사람같은 느낌이었다. 금발에 뾰족한 코, 푸른 눈동자, 그리 크지 않은 키, 수줍어하는 분위기를 가졌다. 어디서 본 사람일까? 따뜻한 택시 안으로 들어가 앉자 기사 아저씨는 교향곡같은 클래식 음악을 틀면서 출발했다. 택시 안을 뒤덮는 그 웅장한 음악을 듣는 순간, 기사 아저씨가 80년대 독일 영화 '베를린 창공'에 천사로 나오는 독일 영화배우 오토 잔더와 똑같이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를 태운 택시는 비장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새벽의 코펜하겐을 가로지른다. 어둠 속에 회색 구름이 잔뜩 내려 앉은 새벽 5시의 북구 도시.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세련되고, 너무 질서정연해서 냉정하게까지 느껴지는 이 도시 속을 '베를린 창공' 천사처럼 생긴 덴마크 운전 기사가 나와 딸을 싣고 바람을 가로 지르며 천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같은 음악과 함께 어둠 속을 달리고 있다. 코펜하겐을 떠나는 마지막 시간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느껴져서 '아,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코펜하겐 분위기와 매우 어울리는 작별이었다. 나는 R의 손을 꼭 잡고 함메르쇠이의 그림과 똑 닮은 풍경이 어둠 속에 훤히 지나가는 것을 꿰어지게 바라 보았다.

코펜하겐에서의 4박 5일은 너무 짧았지만 덴마크를 잠시나마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알차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너무 짧은 여행이어서 못가본 곳이 많았다. 다시 올 기회가 있다면 햄릿의 무대 옐시노어 성의 모델이었던 크론보그 성, 한스 안데르센의 고향 오펜세, 북쪽 해안 도시 스카겐까지 꼭 방문해 보기로 마음 먹는다.

약 15분 만에 공항 터미널 2에 도착했다. 나는 택시비를 내고 오토 잔더를 닮은 운전기사에게 음악이 너무 좋아 우리 여행의 마지막을 완벽하게 장식해 주었다고 말해 주었다. 그는 주름이 잡힌 얼굴 만면에 웃음을 띄면서 잘 가라고 인사를 했다. 그리고 택시를 몰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공항은 텅텅 비어 있었다. 검색 지역도 비어 있어 금방 통과했다. R은 런던 행 라이언에어 비행기를 타야 하므로 게이트 F5로 가야한다. 10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나는 손을 꼭 잡고 딸을 게이트까지 바라다 주었다. 게이트에서는 탑승이 이미 시작되어 우리는 다시 한 번 작별 인사를 했다. R은 나를 꼭 끌어 안고 '엄마, 사랑해. 인어공주를 만나게 해 주어 너무 고마워'라고 속삭였다. "그래, 함께 와 줘서 나도 고마워. 금방 또 만나자, 사랑하는 딸." 나도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줄을 서서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보고 있는데 R이 갑자기 돌아서며 외쳤다. "엄마, 베르겐 여행은 엄마 일생 최고의 여행이 될 거야!" 그리고는 게이트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렇다. 이제 혼자다. 혼자서 노르웨이 제 2의 도시 베르겐을 찾아 간다. 비 내리는 겨울 베르겐은 코펜하겐보다 추울까? 상관없다. 나는 비를 좋아하니까. 이제 베르겐행 비행기를 타러 게이트 쪽으로 걸어간다. 나무 위로 새가 나는 창밖으로 새날이 밝아 오기 시작했다.

부에나 팍 양로병원

Buena Park Nursing Center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통증관리, 투석케어 외상치료, 호스피스케어 등

Subacute Unit Respirator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여가 특별 활동

피아노, 합창
하프연주, 빙고
기타 + 난타연주
생일파티, 아침체조
미술공작, 바디워싱
털발 가꾸기 등

재활치료

물리치료 / 작업치료 / 언어치료

www.buenaparknc.com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한국분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한국어: 562-240-3516

영어: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간호보조사(CNA)구함
영어 / 한국어

정통 지압

- 바디(40분) + 발 (20분) \$30
- 바디 (전신지압 1시간) \$40
- 발 (45분) \$20
- 지압(1시간) + 바디(때밀이) \$70 (입장료 포함)

가든그로브 퀸스파(여성전용)

714-591-5260

985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100% 한국산



치킨까스(1 lb) \$9.99



돈까스 오리지널(1 lb) \$9.99



치즈돈까스(1 lb) \$9.99



양념초이스LA갈비 (2 lb) \$17.99



양념등심소불고기 (2 lb) \$12.99



양념돼지불고기 (2 lb) \$9.99

간장게장

튀김용 왕새우 (10개) 300g \$6.99



농수산 마트

714-403-1230

1811 W Commonwealth Ave, #M, Fullerton, CA 92833 (은혜한인교회 옆)

